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63)

親君子，遠小人
친 군 자 원 소 인

군자를 가까이하고 소인을 멀리하십시오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어느 시대에나 치세(治世)를 이룩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황제나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을 채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람을 제대로 채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고 좋은 것을 물려받았다고 하여도 이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한 실례(實例)로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아마도 진(秦)의 이세(二世)황제인 호해(胡亥)일 것이다.

그는 아버지 진시황제(秦始皇帝)가 600~700년 역사를 가진 이웃 여섯 나라를 멸망시키고 통일한 천하를 넘겨받은 사람이다. 진시황제가 살아 있을 때, 아들 호해에게 법률을 잘 알고 이를 잘 적용할 줄 아는 법 전문가인 환관(宦官) 조고(趙高)에게 법을 배우라고 시킨 일이 있다. 이때 호해에게 조고는 전문지식을 갖고 입안의 허처럼 말을 잘 듣는 신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호해가 황제가 되고 나서 조고는 황제를 속이고 온갖 장난질을 하면서 드디어 자마위록(指馬爲鹿)의 고사를 남길 정도로 정사(政事)를 독단하더니, 결국 진(秦)이 천하 통일을 한 지 15년, 호해가 황제가 된 지 2년 만에 진왕조는 멸망하였다.

그 이후로 환관을 정사(政事)에 끌어들이는 것을 터부시하였다. 하지만 환관들은 여전히 황제의 최근(最近) 거리에서 기회를 보아가며 잇속을 챙기고 싶하면 황제를 세우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는 일을 빈번하게 저질렀다. 환관의 폐해를 기록으로 알면서도 여전히 환관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궁궐에서 같이 살면서 온갖 황제가 필요한 것을 입 속의 허처럼 심부름을 잘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보통은 소인(小人)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후대의 황제 가운데 소인(小人)으로 치부되는 근시(近侍)에 대하여 특별히 경계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었다. 금(金)의 세종(世宗)은 ‘사람을 아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좌우의 근시(近侍)는 비록 항상 말한다’고 하여도 짐(朕)은 아직 일찍 가버이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근시란 황제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는 사람을 말하는데, 환관도 여기에 포함되니 금세종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남송(南宋) 황제인 효종(孝宗)은 경우가 조금 달랐다. 그에게는 태자 시절부터 옆에서 도와주던 증적

(曾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황제에 가까운 사람은 대부분 그러하듯 증적도 겉으로는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척하면서 황제하고 가깝다는 것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게 온갖 이권과 인사에 개입하였다.

한번은 증적이 황제인 효종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게 하려고 관리들에게 상벌(賞罰)을 엄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아는 사람에게 말하여 과거시험에서 황제의 생각과 같은 내용의 대책을 쓰게 하여 과거(科擧) 갑과(甲科)에 합격하게 하였던 일이 있다. 커닝을 시킨 것이다.

사실 많은 상금으로 사람을 꺾거나 엄격한 형벌을 통하여 많은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건에 의하여 행동양식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은 소인(小人)들이다. 대인(大人)이나 군자쯤 되면 그의 철학에 따라 사명감을 가지고 상을 주지 않아도 자기 일을 할 것이고 벌을 준다고 하여도 해서 안 될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상과 같은 지도자급이라면 상벌(賞罰)로 조종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증적은 황제의 생각에 아무하려고만 하였지, 황제의 모자라는 생각을 고쳐 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소인의 태도다. 효종은 이 정책을 기안(起案)해 놓고 그래도 군자라 할 사호(史浩, 1106~1194)와 조웅(趙雄, 1129~1194) 두 사람에게 이를 검토하게 하였다. 이들은 내용을 본 다음에 ‘상을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이나, 벌이 무서워 일하려는 사람은 진정한 인재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이 대답을 들은 효종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슬그머니 바꾸었다. 소인은 무조건 황제의 뜻에 따르려 하였고, 군자는 황제의 잘 못 생각한 것을 고쳐 주려고 하였다. 여기에 소인과 군자의 차이가 있다.

이 시기에 철학자 장식(張栻, 1133~1180)이 있었다. 당시에 그는 ‘호상학파(湖湘學派)의 대표적인 인물로, 민학(閩學)의 주희(朱熹), 무학(婺學)의 여조겸(呂祖謙)과 정족(鼎足)을 이루는 대철학자였다. 그가 죽으면서 효종에게 유표(遺表)를 남겨서 효종에게 ‘군자를 가까이하고, 소인(小人)을 멀리하며 신임하면서도 자기 한 사람의 편견(偏見)을 막고, 호오(好惡)하는 것은 공변된 천하(天下)의 이치에 부합’하

기를 간절하게 권고하였다.

사실 장식은 생전에 효종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때 효종이 ‘일찍이 절조를 굳게 지키며 의를 위하여 죽는 신하를 얻기가 어렵다.’라고 말하자 장식은 “마땅히 용안(龍顏)을 범하여 감히 간언(諫言)하는 사람 가운데서 이를 찾으십시오. 만약에 평시에 용안을 범하여 감히 간언할 수 없다면, 다른 날에 어찌 그가 절조를 굳게 지키며 의를 위하여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

이어서 “폐하께서는 마땅히 정사(政事)를 잘 아는 인사를 찾아야 하고, 정사를 처리하는 신하는 찾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다만 정사를 잘 처리하는 신하만을 구한다면 다른 날에 폐하를 실패하게 하는 사람은 아직 반드시 이 사람이 아니고는 없을 것입니다.”라고도 하였다. 예의 조고나 증적 같은 소인은 실무를 잘 처리하는 사람일 터이지만 국정 철학을 알고 정사를 잘 아는 군자는 아닐 것이다.

이 역사 사실을 읽으면서 문득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 같다. 전 정권에서는 민변 출신들이 중요한 일을 맡더니 요즘에 와서는 검찰 출신들이 대신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고 야당을 이끄는 사람도 율사(律師) 출신이 많은 것 같고 TV 토론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유독 율사가 많이 눈에 띄니 혹 조고 같은 사람이 우대받는 시대가 아닌지 걱정스럽다.

사실 한(漢) 왕조는 진(秦)시대에 모든 것을 법으로 처리하려 하였던 부작용을 알고 형리(刑吏), 법리(法吏)를 도필리(刀筆吏)라고 하면서 하급직에 묶어 두었다. 이들을 실무적 심부름이나 시키겠다는 뜻이었다. 대신 커다란 정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은 철학자라 할 유학자(儒學者)로 채우려 하였다. 말하자면 한대에는 도필리는 소인이고 유학자는 군자로 인식한 셈이었다.

각설하고 법을 공부하였다고 모두 소인인 도필리로 매도할 이유는 없다. 이들도 법의 철학적 근거와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법조문의 적용에 철학적 배경을 갖추며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도필리라고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각종 시험에서 법철학은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염두(念頭)에 두면서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간다는 사람의 행태를 보니 신뢰가 가기보다는 소인인 법꾸라지로 보이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답답하다.

부산 등산회의 별난 산행



완게서원 본채



완게서원 사당(경덕사)

부산등산회(회장 권영인)는 지난 9월 23일에 조금 별난 산행에 나섰다. 회원 20여명이 산청 신등으로 어릴 적 추억의 열매, 알밤을 주우러 밤나무 산에 올랐다. 산골에서 자란 오십 대 이상이면 분명 알밤에 대한 추억 한, 둘은 있을 터이다. 풋밤을 따서 보이(보니)를 뒤흔거리며 까먹던 일, 새벽 같이 일어나 알밤을 줍던 일, 밤 따는 구경 중에 밤송이에 맞거나 쏟아진 알밤을 몰래 줍다 혼이 났던 일 등등...

산청으로 가는 버스 간은 모처럼의 나들이에 ‘토실토실 알밤’에 대한 애똥한 추억까지 함승하여 다소 들뜬 분위기로 출발하였다. 주조 측이 준비한 떡과 식수를 나누고, 등산 회장·종친회장·명예회장이 차례로 의례 인사를 한 뒤부터 차츰 평온을 찾는다. 그렇게 달려 채 두 시간 못 미쳐 신등에 닿았다.

풀베기를 마친 밤나무 산은 별초한 듯 깔끔하다. 밤송이 속 툇싯한 알밤은 보기에 풍요롭고 예뻐 반갑기 그지없다. 마침 늦봄이 발걸음 익는 때를 맞추어 밤 줍기에 제격이다. 들참으로 막걸리 한 잔씩 하지는 말도 아랑곳없이 밤나무 아래로 앞 다투어 달려가는 모습들에서 영락없는 어릴 적 동심이 묻어난다.

그로부터 서너 시간을 보낸 뒤, 모여드는 어계마다 알밤이 한 자루씩 얹혀 있다. 한자리에 모여앉아 점심 도시락을 먹으며, 마치 전투병의 무용담처럼 밤 줍던 이야기꽃을 피우는 풍경은 흡사 소풍 나온 학생처럼 신나고 들떠 보인다.

시장이 반찬이라 김밥 한 줄도 꿀맛이 따로 없고, 땀 흘린 뒤라 막걸리 한 사발도 감로수에 다름없다.

모처럼의 나들이에 공부도 곁들여 보자는 말에 짐들을 수습하여 지근거리의 완게서원을 찾아가는다. 이 서원은 오늘날 과수원의 주인 권성용 직전 부산종친회장의 10대 조고인 동계공(23世, 휘 濤)을 배향한 곳이다. 공은 강직한 성품과 높은 학덕으로 인근 유림에 고명하신 분으로 사간원 대사간과 이조참의를 지냈고, 시호는 충강이며,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당초, 문익점 선생을 모신 단청 도천서원(道川書院)에 종향되었다가 본 서원(구 동계정사) 창건 후 이안되었다. 저서인 “동계문집(東溪文集)” 8권의 목판은 경남도 유형문화재 233호로 지정되었다.

먼저 서원 건물을 둘러본 일행은 사당에 올라 동계공을 배알한 뒤, 앞뜰에 자리를 잡고 오늘 산행을 위해 준비한 돼지 수육과 오미자 막걸리로 즐겁고 신나게 나들이를 즐겼다.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가을이 서서히 익어가고 있다. 들관 가득 누른빛이 묻어나고, 둔덕에 선 갈나무 이파리에도 붉은 물이 배어드는 중이다. 강둑에 하늘대는 코스모스와 억새가 어울려 신명나게 가을 춤에 빠져들고, 하늘가에는 양떼가 몰려온다. 등산 회원들에게 아름답고도 기쁜 하루를 선물해 주신 송암(성암) 명예회장과 등산회 영인 회장께 고마움의 뜻을 전한다.

〈부산 사무국장 권재영〉

추밀공파 정헌공 추향제 봉행



추밀공파 정헌공(正獻公, 왕후王煦, 1296~1349), 밀직공(密直公, 왕중왕王重貴, 1335~1369), 부윤공(府尹公, 권숙權肅, 1366~1428) 추향제가 10월 8일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묘소에서 권동원 참의공 종중 이사장, 권석원 정헌공 종

중 사무처장, 권용기 대전종친회장, 권인순 탄옹공 종중 이사장, 권정택 행주서원 원장 등 150여 명의 참제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권용기 대전종친회장

2023年 10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9.26. ~ 10.27. 총 납부자 165명
지사·지국 1곳

(이름순)														(단위: 원)	
*권영일	30,000	권대일(대구)	30,000	권세원(대구)	30,000	권영암(군위)	30,000	권오현(영주 휴천동)	30,000	권중국(예천)	30,000	권혁문(서울용산)	30,000	권봉철(전주)	20,000
권경상(제천)	30,000	권동식(경기남양주)	30,000	권수기(대구)	30,000	권영주(안동 대곡리)	30,000	권오호(안동)	30,000	권중도(포항)	30,000	권혁백(안동)	30,000	권영기(전주)	20,000
권경오(경산)	30,000	권동식(보령)	30,000	권수웅(진주)	30,000	권영일(영양)	30,000	권오훈(대구 달성군)	30,000	권중수(서울구로)	30,000	권혁봉(경기양주)	30,000	권영춘(전주)	20,000
권경희(서울송파)	30,000	권득상(제천)	30,000	권순노미(안동)	30,000	권영재(경기고양)	30,000	권오훈(대구 서구)	30,000	권창순(경기양평)	30,000	권혁성(청양)	30,000	권오신(전주)	20,000
권계수(창녕)	30,000	권만길(경기성남)	30,000	권순덕(서울강남)	30,000	권영주(안동)	30,000	권요택(전주)	30,000	권창식(포항)	30,000	권혁수(서울서대문)	30,000	권오채(전주)	20,000
권계자(안동)	30,000	권만수(서산)	30,000	권순덕(진주)	30,000	권영준(서울양천)	30,000	권용석(서울마포)	30,000	권천수(안동)	30,000	권혁일(원주)	30,000	권오훈(원주)	20,000
권구현(합천)	30,000	권만집(상주)	30,000	권순배(구미)	30,000	권영철(김해)	30,000	권용조(김해)	30,000	권철진(포항)	30,000	권혁조(안동 안기동)	30,000	권왕주(전주)	20,000
권구훈(경주)	30,000	권명호(강진)	30,000	권순원(영덕)	30,000	권영학(경기이천)	30,000	권용진(안동)	30,000	권철학(대구)	30,000	권혁준(대구)	30,000	권윤택(전주)	20,000
권국노(익산)	30,000	권문기(경기양평)	30,000	권순철(안동 송현동)	30,000	권영현(김해)	30,000	권용태(서울광진)	30,000	권태근(평창)	30,000	권혁한(경기용인)	30,000	권이수(전주)	20,000
권국진(대구)	30,000	권민철(강릉)	30,000	권승현(강릉)	30,000	권영현(밀양)	30,000	권용태(영주)	30,000	권태상(서울중앙)	30,000	권현(대구)	30,000	권일수(전주)	20,000
권규(봉화)	30,000	권병대(경기성남)	30,000	권시현(광주)	30,000	권영현(서울은평 진흥로)	30,000	권우곤(경기성남)	30,000	권태칠(창원)	30,000	권형선(인천)	30,000	권정택(전주)	20,000
권기도(구미)	30,000	권병선(서울동대문)	30,000	권영근(밀양)	30,000	권영희(인천)	30,000	권원일(안동)	30,000	권태호(부산)	30,000	권화성(대구)	30,000	권중주(전주)	20,000
권기문(창원)	30,000	권병성(서울노원)	30,000	권영기(서울광진)	30,000	권오기(밀양)	30,000	권위달(영덕)	30,000	권태환(영덕)	30,000	권화성(아산)	30,000	권춘근(전주)	20,000
권기영(안동)	30,000	권병채(예천)	30,000	권영대(경기용인)	30,000	권오길(서울노원)	30,000	권유선(경기용인)	30,000	권태훈(서울동대문)	30,000	권희용(서울동대문)	30,000	권혁성(전주)	20,000
권기준(경기의정부)	30,000	권병환(삼척)	30,000	권영동(서울양천)	30,000	권오룡(구미)	30,000	권익현(부산)	30,000	권택락(안동)	50,000	전주완주종친회(25명)		권혁신(전주)	20,000
권기준(서울강서)	30,000	권봉현(포항)	30,000	권영록(대구)	30,000	권오선(경산)	30,000	권재천(창원)	30,000	권택준(태백)	30,000	권경수(전주)	20,000	권혁주(전주)	20,000
권기진(영주)	30,000	권사호(창원)	30,000	권영만(부산)	30,000	권오섭(영주)	30,000	권재태(진주)	30,000	권현(영주)	30,000	권경택(전주)	20,000	권현수(전주)	20,000
권기태(서울노원)	30,000	권상근(대구)	30,000	권영배(대구)	30,000	권오수(청송)	30,000	권정길(봉화)	30,000	권혁구(대전)	30,000	권기성(전주)	20,000	권희성(전주)	20,000
권기태(포항)	30,000	권상현(광주)	30,000	권영복(청주)	30,000	권오식(안동 계평리)	30,000	권정대(경기양주)	30,000	권혁달(경주)	30,000	권기혁(전주)	20,000	권희승(전주)	20,000
권기훈(경기이천)	30,000	권석창(서울종구)	30,000	권영봉(김해)	30,000	권오영(강릉)	30,000	권종규(안동)	30,000	권혁도(예천 남본리)	30,000	권명수(원주)	20,000	지사·지국 납부지역	
권대은(영천)	30,000	권성근(군산)	30,000	권영봉(안동)	50,000	권오인(대전)	30,000	권종희(대전)	30,000	권혁래(경기성남)	30,000	권문오(전주)	20,000	여주종친회	280,000

*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 납부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중회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5,020,000원